

- 주요 뉴스: 미국 4월 실업률 3.6%, 임금 상승 압력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화 가능성
 - EU 집행위원회, 회원국 참여를 위해 러시아 원유 금수조치 수정을 제안
 - 독일 IFO 연구소장, ECB역시 미국 연준에 맞춰 금리를 빠르게 인상할 필요
 - 영란은행 이코노미스트, 높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소득 감소는 불가피

■ 국제금융시장: 미국 4월 고용지표 발표 등 영향으로 주요 자산 가격 하락
주가 약세[-0.6%], 달러화 약세[-0.1%], 금리 상승[+9bp]

- 주가: 미국 S&P 500 지수는 고용 호조에도 불구하고, 임금 상승 가속화 우려로 약세
유로 Stoxx 600 지수는 추가 경기둔화 및 실질소득 위축 가능성으로 약세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경제 연착륙 우려 등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약보합
유로화 가치는 0.1% 상승, 엔화는 0.1% 하락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임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
독일은 ECB의 금리 인상 전망 및 유럽증시 약세 등으로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70.3원, -2.7원) 0.2% 하락, 한국 CDS 보합

		5/6일	5/5일	전일대비			5/6일	5/5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123.3	4,146.9	-0.57%	국채 금리 10y	미국	3.14%	3.04%	9bp
	유럽	429.91	438.26	-1.91%		독일	1.14%	1.04%	9bp
	중국	3,001.6	3,067.8	-2.16%	CDS 5y	한국	42bp	42bp	0bp
	일본	27,004	휴장	-		중국	83bp	81bp	2bp
	한국	2,644.5	휴장	-	위험 지표	EMBI+	-	530	-
환율	달러지수	103.66	103.76	-0.09%		VIX	30.19	31.20	-3.24%
	유로화	1.0551	1.0542	0.09%		WTI유	109.77	108.26	1.39%
	엔화	130.56	130.20	-0.28%	원자재	구리	426.2	428.5	-0.55%
	위안화	6.6668	6.6558	-0.17%		금	1,883.8	1,877.2	0.35%
	원화	1,272.7	휴장	-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500, 유럽 Stoxx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4월 실업률 3.6%, 임금 상승 압력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화 가능성

- 미 노동부, 4월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일자리가 42.8만개 증가하고 실업률은 3.6%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발표. 이는 블룸버그 예상치 3.5%보다 소폭 높은 수준. 4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.1달러(0.31%) 오른 31.85달러를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5.46% 인상
-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역대 가장 빠른 실업률 하락을 달성했다고 자평하면서도,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
- PNC의 Gus Faucher 이코노미스트는 강한 노동 수요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향후 임금 상승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. 한편 BMO 캐피탈마켓의 Sal Gautieri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경제 성장률과 고용 증가세가 함께 둔화될 수 있다고 우려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EU 집행위원회, 회원국 참여를 위해 러시아 원유 금수조치 수정을 제안

- EU 집행위 관계자들은 헝가리, 슬로바키아, 체코의 에너지 공급 안정을 위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금지 조치 수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. 해당 수정안은 헝가리 등이 2024년까지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기존 제재를 완화. EU 외교관들은 다음주까지 27개 회원국이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
- 앞서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가 에너지의 65%를 러시아산 원유에 의존하고 있어 경제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파이프라인 등 투자와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금번 對러 6차 제재에 동참하기 어렵다고 언급
- 반면, 우크라이나 세르히 마르첸코 재무장관은 러시아산 원유 및 가스에 대해 완전한 국제적 금수 조치를 취해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

■ 러시아 외무부, 우크라이나에 핵무기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

-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는 핵무기 사용이 우크라이나 특수 군사작전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핵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

■ 독일 IFO 연구소장, ECB역시 미국 연준에 맞춰 금리를 빠르게 인상할 필요

- Clemens Fuest 연구소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유로화 대비 달러 절상으로 이어지면서 유럽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인다고 분석하고, 최근 유로존의 높은 인플레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ECB가 금리 인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설명
- 한편, ECB의 Frank Elderson 이사 역시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다고 우려하면서 오는 6월 회의에서 인플레 기대치를 낮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힘

■ 영란은행 이코노미스트, 높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소득 감소는 불가피

- BOE의 Huw Pill 이코노미스트는 영국 국민과 기업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손실 소득을 만회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. 그는 향후 18개월간 높은 에너지 및 상품 가격이 소비력을 약화시키고 기업 이익을 감소시킬 것이어서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 없다고 전망

■ 미니아폴리스 연준 총재, 공급망 우려가 지속될 경우 더 적극적인 금리 인상 필요

- 미국 미니아폴리스 Neel Kashkari 연준 총재는 공급망 문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인플레이션을 완화를 위해 더욱 공격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. 또한 자신은 중립금리를 2%로 보고 있으나, 일부 정책 입안자들은 2~3% 사이를 추정하고 있다며 중립금리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음을 시사

■ 엔비디아, 그래픽처리장치(GPU) 수요 공개 지연으로 550만달러 납부 예정

-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엔비디아가 지난 2018년 2~3분기에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GPU 수요 급증 사실을 고의로 뒤늦게 공개했다고 지적. 이에 엔비디아는 혐의에 대한 특별한 해명 없이 550만달러 지급에 합의했다고 설명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5/6현지시각 기준)

- 캐나다 4월 실업률: 5.2%, 3월(5.3%), 예상치(5.2%)
- 독일 3월 산업생산(전월비): -3.9%, 2월(0.2%), 예상치(-1.3%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31, E-mail jgback@kcif.or.kr